

8장 개구리, 티끌, 파리 재앙

8장에서는 개구리, 티끌, 파리 재앙을 기록한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출애굽은 단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분이 백성이 되는 데에 있다. 바로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었다. 이 주제가 각 재앙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살펴보자.

1. 둘째 재앙 (8:1-15)

피의 재앙에 이어서 개구리 재앙과 이의 재앙이 따른다. 물이 피로 바뀌는 것보다 개구리 재앙은 좀 더 심각하였다. 첫째 재앙이 있을 때 바로는 자기의 궁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었지만, 둘째 재앙은 바로의 궁궐에도 개구리가 찾아가 그의 침대와 부엌에도 우글거리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공격하였다. 바로는 둘째 재앙을 당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하여 재난이 자신들에게서 떠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

1) 여호와의 말씀 (8:1-4)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말인데, 사람의 예상과 달리 개구리로 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개구리들이 번식하듯이 이집트에서는 범람이 끝난 10-11월에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번식하였다. 하지만 그 개구리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급격히 늘어나고 땅으로 올라오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이었다. 개구리가 출몰할 장소를 열 군데나 일일이 기록하였다. 개구리가 바로의 집과 방, 침실, 침상에 오르고,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올라가며, 그리고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도 이르고, 더 나아가서 바로와 신하와 백성의 몸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셨다. 자거나 먹는 것이 어렵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괴로움이 더 심해져서 사람의 몸이 공격을 받는 데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2) 모세와 아론의 시행 (8:5-6)

여호와의 경고에 대한 바로의 대답이 없이 곧바로 둘째 재앙이 시행되는 것이 기록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강과 운하와 연못 위에 펴니까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왔다. 개구리도 여호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3) 술객의 흥내와 바로의 인정 (8:7-11)

바로 앞에 선 그의 술객들도 그들의 술법을 사용하여 모세처럼 개구리들이 물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바로의 술객들도 동일한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얼른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잠깐만 생각해도 이것은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가져온 일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애굽의 술객들은 더 많은 개구리를 만들어 냈을 뿐이지 개구리를 물리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어느 정도 모방할 수는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행하신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모방한 것으로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 냈을 뿐이다. 여기에서 애굽 술객들의 한계가 드러났다.

술객들이 아론과 같이 개구리가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도 바로의 반응은 달라졌다. 물을 피로 만든 재앙 때에는 여호와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궁궐로 들어가 버렸다. 그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고 여호와의 권능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7:22). 그러나 술객들이 개구리를 다시 물로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오게 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을 뿐일 때 그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개구리가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하였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은 술객들이 개구리를 만든 다음이었다. 술객들은 개구리들이 물에서 나오게 할 수는 있었으나 그것들

이 떠나게 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바로는 개구리를 나오게 하거나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4) 개구리의 죽음과 바로의 강박함 (8:12-15)

모세가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죽게 하셨다. ‘모세의 말대로’라는 표현은 모세와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낸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이제 바로와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 행한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며, 여기에서 하나님과 그 종의 친밀한 교제의 예를 본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세가 생각한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많던 개구리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참조. 8:9). 그러나 개구리는 나일강으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개구리가 있던 곳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끝까지 거역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신으로 섬기던 동물의 시체를 만지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겪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였다.

바로는 개구리가 사라지자 그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시 마음이 둔해지고 강박하여져서 그가 했던 말대로 행하지 않았다. 왕으로서 공격적으로 했던 약속을 쉽게 어겼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또 다른 좌절이 되었을 수 있다.

2. 셋째 재앙 (8:16-19)

셋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하신 사실이나 바로의 반응이 기록되지 않고,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든 사실만 기록되었다. 이것은 바로에게 하는 경고나 바로의 거절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함축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1) 이를 만들 (8:16-17)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여 땅의 티끌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었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올랐다. 사람뿐 아니라 가축도 고통당하는 것을 두 번 기록한다(8:13-14). 땅의 티끌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의 무수한 이들이 사람과 짐승을 공격하여 고통을 주었다

2) 술객의 실패와 고백 (8:18-19)

술객들이 자기들의 술법으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말씀 다음에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은지라” 하는 말이 첨가되었다(8:18). 이것은 술객들의 좌절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이다. 애굽 사람들이 기대했지만 술객들은 이를 없애지도 못하였고 이를 만들지도 못하였다. 흉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술객들에게도 좌절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던 애굽 사람들, 심지어 가축에게도 큰 문제였던 것이다.

큰 좌절을 겪은 술객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하였다.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은 ‘손가락’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적인 활동을 표시한다(출 31:18). 애굽 술객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였다. 이 일은 신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므로 자기들의 술법으로는 흉내 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들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행한 재앙도 애굽 사람들의 술법과 달리 신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술객들이 좌절을 통해서 회개한 것은 아니다. 그들도 완강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여전히 바로를 보좌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종의 재앙에서, 독종이 술객들에게도 나서 모세 앞에서 못하게 하셨다(9:11).

3. 넷째 재앙과 바로의 반응 (8:20-32)

둘째 시리즈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된다는 점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다는 것을 두 백성을 구별하심으로써 밝히신다. 또한 둘째 시리즈에서는 지팡이나 손을 사용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의 재주나 방법에 달려 있지 않음을 표시한다. 여호와와의 말씀은 항상 있고,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

넷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다. ‘파리 목숨’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파리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파리를 사용해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1) 파리 재앙 (8:20-24)

둘째 시리즈의 첫째 재앙도 첫째 시리즈의 첫째 재앙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물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 하는 말로 시작한다(7:15; 8:20). 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는 말도 똑같다(7:16; 8:21).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심판의 도구는 파리다. 파리가 애굽 신의 하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애굽 신에 대한 논쟁을 볼 수는 없다. 앞의 두 재앙이 물과 흙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재앙은 공중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평소에는 파리 같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였겠지만, 그것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공격할 때 두려움과 좌절은 더 큰 것이 될 것이다.

파리는 날아다니는 데서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에는 파리 떼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참조 창 45:10). 파리가 고센 땅에는 없게 된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다. 미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심판주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일이다.

22절에서 땅에도 파리가 가득할 것을 말했는데, 24절에서는 “땅이 해를 받더라” 하고 요약해서 말하였다. 단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땅’이 해를 받았다. 이것은 동물과 풀, 나무 등도 함께 고통을 당했음을 의미한다. 파리 떼가 사람만이 아니고 나무와 채소들 위에도 덮였다면 온 땅이 해를 입어서 사막처럼 황폐해졌을 것이다.

2) 바로의 반응 (8:25-29)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파리를 통해 멸망시키려고 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이것은 두 번째 부름이다(8:8).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제사드리라고 하였다. 얼른 보면 모세의 말을 최대한 듣지 않고 최소의 것으로 응답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바로의 교만하고 간사한 태도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또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바로는 거기에는 접근도 못하게 하면서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하였다. 첫째는 바로의 말이 가진 모순을 지적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혐오하면서 돌로 칠 것이라고 말하였다. 둘째,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해서 전하였다. 때로는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과해야 할 내용을 삭감하기가 쉬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반복해서 바로에게 전하였다(3:18; 5:3).

바로는 모세에게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였다. 개구리 재앙 때에 모세가 기도하자 개구리가 떠난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자 모세는 ‘내일’ 파리떼가 떠날 것이라고 하였다. 개구리 재앙 때에 바로가 ‘내일’ 떠나게 하라고 말한 것을 받아서 대응한 것이라 생각된다(8:10).

3) 모세의 기도와 바로의 완강함 (8:30-32)

모세는 바로와 헤어진 후에 바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파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떠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있는 그의 종이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 재가하셨다. 사람이 파리를 쫓아낼 수 없었지만, 모세가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듣고 파리를 모두 쫓아내셨다.

“물수히”라고 번역된 말은 직역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라는 뜻이다. 이 말은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없앤 것(10:19), 그리고 애굽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14:28) 하는 표현에도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읽으면, 파리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없앤 것은 애굽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앨 것에 대한 예표가 된다. 파리나 메뚜기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활동을 하다가 자기의 영역으로 되돌아갔는데, 바로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과 겨루는 태도를 취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심판을 받았다.

바로는 파리 떼가 하나도 남김없이 떠나자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기와 백성을 공격하던 파리 떼가 모세의 기도 에 의해 사라지는 것에서 신비한 것을 경험했을 텐데도 바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

목상과 실천: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구별하심

여호와를 섬기는 것

열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확정에서 구원하여 내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개구리 재앙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8:1) 하는 말씀과 함께 재앙을 보냈고, 바로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8:8) 하고 말하였다. 물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말을 지키지 않았다.

파리 재앙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8:20) 하는 선언으로 시작되어고 바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8:25) 하고 양보하였다. 모세가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것이라고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8:27)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8:28) 하고 양보하였다. 모세는 “이 백성을 보내여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8:29) 하고 분명하게 뜻을 박아 말하였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함의하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의 목적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음을 열 가지 재앙에서부터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

파리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분하심

파리는 날아다니는 데서 지역적인 제약을 받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에는 파리 떼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다(참조. 창 45:10). 파리가 고센 땅에는 없게 된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다. 미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심판주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일이다.

파리 재앙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고 하셨다. “세상 중의”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 땅의”라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애굽 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

다. 애굽 땅의 사람뿐 아니라 파리까지도 통치하는 분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물과 흙뿐 아니라 공기도 모두 통제하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데에 이번 재앙의 의미가 있다.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 떼가 없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와 백성과 바로의 백성이 대비된다(8:21, 23). 두 백성 사이의 구분이 계속 유지되다가 (메뚜기 재앙에서는 언급이 없다) 장자의 재앙과 홍해의 심판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구분은 생명과 사망의 구분이다. 여호와와 편에 있으면 생명이지만(8:23; 9:4, 26; 10:23; 11:7) 바로의 편은 재앙과 사망이다.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엄위로운 사실 앞에서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심정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들은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아는 심정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은 여호와를 이는데 심판을 통해서 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자비로 알게 되지만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히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만을 섬기는 데로 인도한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중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열 가지 재앙의 핵심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을 제시해 주셨다.

8장 익힌 문제

1. 1) 여호와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첫째 재앙 후 며칠이 지난 뒤에 모세를 바로에게 가도록 하셨습니까? (7:25-8:1)
- 2)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목적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1절)
- 3) 개구리가 들어가거나 올라갈 곳은 모두 몇 군데입니까? (3-4절)
- 4) 개구리 재앙 후에 바로가 허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
- 5) 개구리가 떠났으므로 바로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 6) 어떤 일이 있는 뒤에 애굽 온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다 죽었습니까? (12절)
2. 1) 셋째 재앙은 무엇이고, 앞의 두 재앙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 2) 애굽의 숙객이 이 재앙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18, 19절)
3. 1) 넷째 재앙은 무엇이며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21절)
- 2) 파리 재앙에서 나타낸 표징은 무엇이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22-23절)
- 3) 바르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어떻게 허락하였고(25절) 모세의 대당은 무엇이었습니까? (26-27절)
- 4) 바르는 어떻게 허용하였고(28절) 모세는 어떻게 대당하였습니까? (29절)
- 5) 모세가 간구하여 파리 떼가 떠나자 바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2절)
4.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과 여호자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보십시오.